

다발성경화증 앓는 시인...치열한 예술혼 발휘



황신애씨 시·그림책 펴내고 전시회 진행 장애인에 용기 선사...“선한 영향력 확산”

2003년 40살 때 발병한 다발성 경화증을 안고 살아온 주부시인 황신애씨가 최근 시·그림책 ‘이별은 나중에 온다’를 발간했다. 또 이 시·그림책을 기념해 열리는 전시회도 오는 18일부터 5월 3일까지 광주 금봉미술관에서 열린다. 시·그림책에는 시 56편과 수필 4편, 색연필 그림 15점이 실렸다.

2017년 나온 황 시인의 2번째 시화집인 ‘파란 달팽이’ 이후 9년 만이다. 시인은 2002년 방송대 문학상에 시 ‘섬진강’이 가작으로 선정되고, 2015년 시화집

‘모로’를 출간한 바 있으며, 2017년 대한민국의 장애인 문학상 운문부 대상과 2018년 산문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황 시인은 사지 마비로 왼쪽 손가락의 기능이 10% 정도만 남아있을 정도의 희귀병을 앓고 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함께 지내는 그녀는 컴퓨터를 켜는 것도, 그림을 그리기 위해 책상 위에 왼팔을 올려놓는 것도 혼자서는 힘들 정도다.

시구를 머릿속에 완전히 외워놓았다가, 왼손 검지로 자판을 두드려 시를 쓴다. 다발성경화증 판정을 받고 입급차례

개발과 치료를 거듭한 1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중증장애가 됐다. ‘젓갈’이라는 시에서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곤박이 된 몸으로 형체도 없이/녹아내린 것도 모자라 고약한 냄새로 견뎌야 하는/나도 젓갈이 되고 싶은 것이다’고 말한다. 시·그림책은 탐블벅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가 마련됐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신경 축수에 손상을 입는 질환이다. 현대의학으로는 원인과 치료법을 아직 알 수 없다. 뼈와 관절이 녹는 것 같은 뜨거운 통증이 계속되고 신경 장애로 운동 장애 및 마비가 지속된다.

2014년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던 어릴 적 꿈을 되새겨 노트에 4B 연필과 지우개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연필을 꺾을 수도 없는 무력증과 떨림 때문에

물감이나 붓을 사용할 수 없었고, 한 작품당 색연필로 3만 번 이상의 회과 선을 그어 스케치를 완성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아이들의 주검이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과 동일시되는 순간을 겪고 나서였다. 그때부터 모로 논 공책 아래 페이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다발성 경화증은 뇌신경 축수에 손상을 입는 질환이다. 현대의학으로는 원인과 치료법을 아직 알 수 없다. 뼈와 관절이 녹는 것 같은 뜨거운 통증이 계속되고 신경 장애로 운동 장애 및 마비가 지속된다.

2014년부터 화가가 되고 싶었던 어릴 적 꿈을 되새겨 노트에 4B 연필과 지우개를 이용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연필을 꺾을 수도 없는 무력증과 떨림 때문에

황 시인은 2022년 ‘제5회 광정숙 인권상’을 수상했다. 헌법재판소를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신청 제한에 대해 ‘헌법 불일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평범한 주부로 살았던 지난날과 20년 이상 투병 생활 끝에 얻은 생명에 대한 강렬한 인식 및 글쓰기와 그림 그리기로 예술적 감성을 모두 체험해온 황신애 시인은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는 저의 예술적 삶이 장애인에게 용기를 주고 비장애인들에게 삶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시회 오픈식과 사인회는 18일 진행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광주도시공사, 시민 안전망 구축 역량 강화 송창영 광주대 교수 초빙...임직원 100명 대상 재난안전 특강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는 1일 시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사내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재난안전 인문학’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을 위해 대회의실에서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강연은 재난안전 권위자인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진행했다.

송 교수는 강의에서 하인리히 법칙(1대 29대 300)을 비롯해 미국 뉴올리언스 카트리나, 후쿠시마 원전 폭발 등 국내외 대형 재난 사례를 인문학적 시각으로 분석해, 실무자가 갖춰야 할 철저한 사전 예방 의식과 실천 대응력을 제시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특강을 기점으로 실무 중심 안전 교육을 체계화해 전사적



광주도시공사는 1일 송창영 광주대 교수를 초빙해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위기관리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 보호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견고한 도시 인프라 환경을 완성할 방침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전남 관광 이제 원-팀...광주관광거버넌스 출범

17개 기관 참여 관광 협력 관광객 유치 방안 집중 논의

광주관광공사(사장 정재영)는 지난 31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하나의 여행목적지로 통합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광주관광거버넌스’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 전남관광재단, 강진·해남·영암 문화관광재단 등 17개 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관광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전남 공동 마케팅, 신규 관광콘텐츠 개발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맛의 고향으로 유명한 광주, 전남의 강



광주관광공사는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을 하나의 여행목적지로 통합하기 위한 민관협의체 ‘광주관광거버넌스’를 출범했다.

점을 활용한 통합 관광상품 개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학습 관광객 유치 등 실제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 등에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재영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행정통합을 앞두고 ‘원 데스티네이션(One-Destination)’, 하나의 여행목적지 광주·전남을 만들어가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

든 뜻깊은 자리”라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기관 간 상호협력 있는 관광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aT, ‘내부통제위원회’ 개최...투명한 운영 다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달 31일 나주 본사에서 ‘2026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사적 리스크 관리와 청렴한 윤리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연간 운영계획 및 위험관리 고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 통제하기 위해 ‘내부통제위원회’를 운영하며, 책임 있는 국민 신뢰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내부통제위원장을 CEO로 격상하고 운영횟수를 3회로 확대한 결과, 직원들의 내부통제 인지도가 4%p 증가하는 등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 힘쓰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홍분표 사장



2026년 제1차 내부통제위원회 개최 모습

을 비롯해 부위원장인 김창국 부사장과 주요 처·실장들이 참석해 공공기관 내부통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리스크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등에 논의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거버넌스 및 규정 등 내부통제의 체계적 관리기반 조성, 전사가 참여하는 선제적 위험 대응체계 강화, 내재화와 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 제질화 등이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목포대-영암군, 글로벌 AI 융합 교육과정 운영 영암남중중 첫 수업...AI·AX 환경 교육 진행

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는 최근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와 함께 ‘첨단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진행했다.

영암군은 ‘글로벌 AI 융합 교육과정 운영 사업’ 주관 대학으로 목포대를 선정하고 지난 2월부터 교육 운영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영암군 교육발전특구 전략사업 중 하나인 ‘DX 첨단농업융복합 전공 운영’ 등과 연계해 기획됐다. 지역 내 초·중학교와 대학을 잇는 통합 교육체계를 구축해 첨단 기술 교육과 산업을 결합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예산은 총 1억원이 투입된다.

3월부터 영암남중중학교 학생들을 대

상으로 ‘AI 스마트 정원 및 환경-공간데이터 교육’ 정규 교과과정이 시작됐으며, 오는 7월까지 진행된다.

교육과정은 AI 기술을 활용한 정원 관리 환경 데이터 분석을 학습하고, AR/VR 기반 가상 정원 콘텐츠 제작을 통해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오는 6월부터 7월까지의 관내 독천초등학교, 미암초등학교, 학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확대된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춰 디지털트윈, 피지컬 AI 등을 활용한 생태 정원 시스템 체험 및 IoT 기초 학습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창훈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장은



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는 최근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와 함께 ‘첨단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초·중·대학·산업체를 연계한 통합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AI와 공간 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지역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인사

순천시 ◇4급 승진 △생태환경국장 신순옥
◇5급 전보 △한길건설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6급 승진이결 △남해선 보건의료과장 직무대리

게시판

결론 △나미영주(광주일보 편집국 부국장 사진부장)·정미숙의 아들 도호(보성회천중교사)군. 김현준·탁정연의 딸 하경(장흥고교사)양=4일 오후 2시, 더시그너스웨딩피오레홀
△서승욱(강진경찰서경비정비안보과장)·김은주의 장남 대훈(한국농어촌공사장흥지사)군. 송기동(전 광주일보 예향국장)·강서화(KT 전남전북고객본부)의 장녀 다경(광주 광산구청)양=5일 오전 11시, 까사디루체 3층 안젤로
△김두환(화순군 산림과장)·윤영경씨 장남 김인호(완도군청)군. 오백만(전 광주공교 교사)·이계순(전 장성군청)씨 차녀 오연주(전남도청)양=11일(토) 오후 4시 광주 서구 상무대로 글로리아웨딩홀 1층 라비아홀.

알림 △일기정양림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로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운세 (음력 2월 15일)

48년생 주변에 아랑과 덕을 베풀어야 한다
60년생 사업상 많은 이익이 생긴다
72년생 여말 가든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
84년생 좋은 일로 집을 떠나 이동하게 된다
96년생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있을 것

51년생 협력자 방언이 있을 것이니 준비하라
63년생 아는 길도 물어가면 손실이 없다
75년생 손실이 일어날 징조가 있으니 조심
87년생 겸손함을 유지하면 성공을 거둘 것
99년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라

54년생 문서를 주고받을 좋은 운
66년생 고집대로 일을 처리하지 마라
78년생 문서 취하러 싸우지만 결국 이긴다
90년생 건문을 확대 시키는 좋은 계기다

57년생 가슴에 남을 만한 일을 겪는다
69년생 무리하면 더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
81년생 행운을 가져다주겠다
93년생 어려움에 처하니 때를 기다리라

49년생 손해볼 수 있으니 너무 앞서 가지 말라
61년생 인복이 있어 많은 이익의 도움을 받을 것
73년생 자녀로 인한 구실수 조심하라
85년생 미련을 버리면 통하게 된다
97년생 경제적 빈곤이 걱정된다

52년생 지인에게 부탁한 일은 기대하지 말라
64년생 뒷사람의 도움을 받게된다
76년생 때론 교제해야 새 국면이 열린다
88년생 절대로 신규는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55년생 문서 옥심 부리면 송사까지 갈 수 있다
67년생 손해가 있어도 뒷사람과 다투지 말라
79년생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라
91년생 여행·출장 등 보류하는게 좋다

58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행보로 이어진다
70년생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길하다
82년생 이성과 있었던 미묘한 갈등이 해소 된다
94년생 구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이성 조심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50년생 부탁한 일에 좋은 소식 있을 것이다
62년생 부동한 거래는 순조로움을 보였겠다
74년생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비점을 찾아라
86년생 분수에 맞게 생활을 하라
98년생 지세를 낮추고 경청하라

53년생 옥심 부린 만큼 손해다
65년생 주변에서 귀하를 음해하고 있다
77년생 부실들을 쳐야 일이 일어나게 된다
89년생 평소 바라던 일이 이뤄질 것이다

56년생 부동한 거래 전에 가족과 상의하라
68년생 득 되는 것이 없는 처지에 있다
80년생 마음을 비우면 어려운 일도 해결된다
92년생 적극적으로 개선해보자

59년생 해결의 실마리를 겨우 찾게 될 것이다
71년생 도처에 귀하의 적들이 있다
83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일로 넘치게다
95년생 큰 손해를 보니 연인 믿고 몸담지 말라